

일반

## SNS는 지역 커뮤니티의 변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청년 1인 가구의 이웃 관계를 중심으로\*

Can Social Media Transform Local Communities?: Focusing on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s of Young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함연수\*\* · 고하정\*\*\* · 박지희\*\*\*\*

디지털 네이티브로 묘사되는 청년 세대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가상공간을 만남의 장이자 세계 확장의 매개로 활용하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탐색한다. 이에 대한 질문은 첫째, SNS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둘째, SNS를 매개로 형성된 이웃 관계의 특징과 효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청년 1인 가구에 인접한 이웃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 미상의 존재로 인식되어 불안감을 고조시켰고, 존재만으로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홀로서기 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지가 사회로부터 오롯이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따라서 그 의도가 어쩔든 간에 자신을 알아보고, 개인 영역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반면 'SNS 이웃'은 개인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만남을 시도하는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며, '즉시' 만나 각자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교환가치'를 관계의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매개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교류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껴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네에서의 다양한

\* 이 논문은 서울연구원의 2022년 작은연구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본 논문의 개선을 위해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 수료(ys.hm@snu.ac.kr)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강사(tweety1229@khu.ac.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 수료(jheep@snu.ac.kr)



만남과 경험을 시도하게 됨으로써 공간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고 애착이 강화되었다. 동네에서 마주치던 익명의 타인이 만남 이후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현화(顯化)하며 인간 군상의 다양성을 체득하기도 한다. SNS를 통한 관계 형성은 아무런 연고 없이 정착한 거주지에 익숙한 관계와 장소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자 '현재에 충실'한 행위, '일시적 뿌리내리기'이다. 또한 SNS가 매개한 '사람과 관계'가 1인 가구 청년이 주거지에 정착해 나가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지역 커뮤니티와 이웃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주요어:** 이웃, 사회적 교류, 지역 커뮤니티, 청년, 1인 가구, 소셜미디어

## 1. 서론

'이웃'은 지역 내 고독사를 예방하고, 층간소음과 같은 크고 작은 분쟁을 이해와 배려로 포용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기초 공동체이다.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이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두를 거주지에 고립시켰을 때에도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이웃이 대두되었다(이행선, 2022: 214).<sup>1)</sup> 뉴노멀 시대에 재택근무 시행 기업이 55.5%에 육박함에 따라 거주지 인근에서 시간을 보내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는 점<sup>2)</sup> 또한 현시점에 청년들의 이웃과 지역 커뮤니티를 주목해야 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웃 관계는 기대하는 바와는 매우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고프먼(2016)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직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표현한 '시민적 무관심(civilinattention)'은 이웃과의 마주침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강영안(2015: 190)은 이웃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전락함에 따라 지리적 인접성의 의미를 초월해 불특정 다수를 이웃으로 보고 포용적 이해를 추구하는 철학적·존재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1) 요하네스 첼러, "코로나 덕에 더 좋아진 이웃 관계", 《괴테 인스티튜트》, 2021.11.

2)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재택근무 시행 55.5%, 코로나19 대응 위해 처음 실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1.12.16.

이처럼 이웃의 존재 가치가 모호해진 현시점에 SNS 플랫폼을 통한 ‘지역 내 관계 맺기’는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으로 포착된다. ‘1km’, ‘블리’, ‘위피’, ‘당근마켓’과 같이 지역을 배경으로 사용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문토’나 ‘소모임’처럼 기존의 관심사 기반 네트워킹 시스템에 동네 친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추가되기도 했다. 동네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019년 80.9%에서 2022년 들어 82.3%로 증가했다는 점<sup>3)</sup>은 관련 수요의 증가를 뒷받침한다. SNS를 통한 관계 형성 배경으로 IT 기기 활용 역량이 높고 가상공간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익숙한 청년(이동후, 2009) 세대의 특성이 함께 작동한다. 청년 세대의 교류가 물리적-가상 교류의 보완과 대체를 통해 강화된다는 점(김구, 2010; 최혜지, 2018)은 지역 내에서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도 기성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역 기반 플랫폼 중에서도 특별히 ‘당근마켓’은 동네를 배경 삼아<sup>4)</sup> 중고 거래 뿐 아니라, 동네 관련 정보를 나누고,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꾸려갈 수 있게 한다.<sup>5)</sup> 당근마켓의 높은 이용률과 가파른 성장세<sup>6)</sup>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고 거래의 이점뿐 아니라 지역 내 소통과 만남에 대한 잠재 욕구를 건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3년 8월 말부터는 당근마켓을 ‘당근(당신의 근처)’으로 표기하는 리브랜딩 전략을 펴 ‘하이퍼로컬(hyper-local)’의 가치를 강화하기도 했다.<sup>7)</sup>

- 
- 3) 최승은. “[트렌드모니터] 희미해진 ‘이웃사촌’, 사라진 ‘우리동네’… 지역 공동체보다 삶의 편의성이 더 중요해”. 《매드타임스(MADTimes)》, 2022.8.11.
  - 4)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는 위치 기반 서비스의 특징상 약 한 달에 한 번씩 GPS 기반의 동네 인증을 해야 한다.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인 동네 범위를 반경 기본 6km로 설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조금 가까운 동네’(약 8개)에서 ‘조금 먼 동네’(약 22개), ‘먼 동네’(약 57개)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범위를 특정 지역에 한정할 이유는 거래의 편리성을 비롯해 동질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신뢰성이 커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5) ‘1km’, ‘블리’, ‘위피’, ‘심쿵’, ‘다톡’, ‘브릿지’ 등 한국의 지역 기반 만남 플랫폼은 소개팅이나 이성 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
  - 6) 2023년 기준 가입자만 3,300만 명에 달하며 기업 가치가 2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정두용, “‘당근하다’가 가진 힘, 수익성으로 연결될까”, 《이코노미스트》, 2023.2.27)
  - 7) 안신혜. “당근마켓, ‘마켓’ 떼고 ‘당근’으로 서비스명 변경…지역 커뮤니티에 주력”. 《BLOTER》,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남의 장이자 세계 확장의 매개로서 오프라인 만남을 주선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SNS를 이용하는 1인 가구의 지역 관계 형성을 주목하였다. 1인 가구 중에서도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청년 세대는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관계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sup>8)</sup> 본 연구대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1위 청년도시’로 불리는 서울시 관악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심층 인터뷰와 심상지도 작업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답변 속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SNS를 매개로 새롭게 발현된 지역 네트워크를 ‘이웃’으로 정의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인식해 온 ‘물리적으로 인접한 이웃’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웃 관계가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지 논의하려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첫째,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SNS를 활용하는 이유를 밝히고, 둘째, SNS를 매개로 형성된 이웃 관계의 특징과 효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 2. 이론적 고찰

### 1) 변화하는 이웃과 동네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웃’을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붙어 있거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Bergel(1955: 478)은 지역적으로 근접해

---

2023.8.28.

8) 청년 세대는 친구와의 대면 만남과 I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만남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경기연구원, 2021: 183).

살고 있는 사람들이자 일차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정유진(2014: 15)은 공간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대면접촉을 하고 상호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장수명(2014)은 특정한 지리적·물리적 공간에 사는 사회경제적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김택규·정석(2016: 74)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주민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호 친밀성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이웃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계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동네 또는 근린은 개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 공간이다. Bernard(1973)는 ‘근린’을 일정한 지역에서 동질성을 지닌 주민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단위로 정의하였다. 앙투안 프르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닿을 수 있는 대도시의 공적 공간과 집이라는 폐쇄된 사적 공간 사이의 이행공간이자 전이공간을 동네라고 보았다(뒤비 외, 2006).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웃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로 작동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많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외로울 수 있지만 도시에서 수백만 명에게 둘러싸여 느끼는 외로움에는 독특한 정취가 있다”(Laing, 2016: 3~4)라고 묘사되듯 도시인은 넘쳐나는 관계 속에서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 그중에서도 ‘인접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의 존재론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양산하는 데 일조하는 관계가 바로 이웃이다. 과거 전통 마을이나 초기 도시화 과정에서 ‘이웃사촌’으로 불리던 관계를 현대사회에서는 찾기 어려워졌다. 김동훈(2011: 32)은 이웃을 주거지 인근에 공존하면서 주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깝고도 불편한 관계라고 표현했다. Tönnies(1887)는 도시에서의 관계가 친밀하고 사적이며, 외부에 대한 배타성을 지닌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Gemeinschaft)에서 느슨하며 개별적이고, 일시적·파편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공공 생활 중심의 사회(Gesellschaft)로 대체되었음을 간파하였다.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 자본의 암울한 변화를 묘사한 ‘혼자서 치는 볼링(Bowling Alone)’의 저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국내에서도 공감하고 있는데, 김기홍(2016: 122)은 근대에 들어 자본주의 경쟁이 심화되고 마을

단위의 자치가 힘을 잃게 되면서 ‘마을 효과’를 경험할 수 없는 ‘마을무효과’<sup>9)</sup>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 공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동네 이웃이라는 ‘도시살이의 역설’(버킹엄, 2022: 249)은 우리가 왜 이웃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반면, 여전히 ‘동네’를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와 긴장에 대한 ‘지속적인 회복 작업(ongoing repair)’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이웃과의 ‘느슨한 유대(weak ties)’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생활의 장소(곽현근, 2007: 60 재인용)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박선경 외(2004)는 이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는 주체라고 하였으며, 박선희(2014)는 이웃을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을 가지고 마을의 일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생활공동체로 보았다.

연구 대상 측면에서 이웃 관계에 주목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재택 주부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 확대기와 해체기에 이웃과의 관계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녀 양육이 이웃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청년의 생애 주기는 이웃 관계 측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청년이 그만큼 지역 내 관계 형성이 미약한 세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고용과 주거, 결혼, 건강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금재호, 2013; 김영미, 2016; 김태완 외, 2017). 그러나 미국의 사회학자 클라이넨버그(2013)는 청년을 포함한 1인 가구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도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과 삶의 다양성에 따라 관계도 함께 변화한다는 점에서 이웃의 정의와 가치를 재발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

9) 현대에는 마을의 기능과 역할이 작동하지 않고, 교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구심점의 부재로 연대감을 느낄 수 없다. 마을(동네)로부터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이점을 얻지 못해 중요성을 잃게 된다. 특히, 잦은 이동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 이러한 유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김기홍, 2016).

웃을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으로 보고 새롭게 나타난 지역 커뮤니티의 변화를 이해하려 한다.

## 2)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가능성

디지털 시대에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행위들은 데이터로 생산되고, 플랫폼은 이를 활용해 도시구조를 새롭게 구축한다. Barns(2020)는 한때는 명확했던 디지털과 공간의 물리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플랫폼과 도시가 상호구성적(co-construction)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플랫폼은 사용수요의 결정이 도시 밀도에 착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본질성을 띤다(홍다솜 외, 2022; 이환경, 2023). 플랫폼 도시주의(platform urbanism)는 도시의 이동성, 연결성, 공간의 재현과 생산, 경제, 정치 등의 과정에 플랫폼이 개입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 변화라고 할 수 있다(홍다솜 외, 2022). 선행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기존 도시와 결합하는 세부적 맥락을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Gillespie, 2010; Leszczynski, 2019; Richardson, 2019).

플랫폼 중에서도 디지털 공간에서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용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현실 세계 속 인간관계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Wellman and Berkovitz(1988)는 근린보다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둔 커뮤니티를 강조하며 온라인 공동체의 새로운 사회적 교류 가능성을 타진했고, Castells(2004)와 Castells et al.(2009) 역시 기존의 고전적 공동체 이론의 공간 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가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Hampton et al.(2000)은 가상 공동체와 현실 공동체가 중첩되는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민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더 높으며, 인터넷이 다양한 관계성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정유진, 2014). 이처럼 공동체와 유대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회복 및 구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높은 자유성의

로 인해 커뮤니티의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논의(김미영 외, 2021) 또한 공존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SNS 또한 도시구조와 독립해 존재하지 않으며, 가상 공간과 현실세계를 넘나들며 상호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구선아와 장원호(2020)는 취향 공동체가 온라인 중심에서 물리적 장소로 이동하는 역방향 현상을 포착하였다.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신뢰감 형성과 직접적 경험의 욕구는 온라인으로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윤경 외(2021)와 박유진 외(2006)는 온라인 만남에 깊이 몰입하거나 심리적 동기화 현상이 강할수록 오프라인 만남으로의 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Kavanaugh et al.(2005)는 구성원을 실제로 만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온라인 이용자의 커뮤니티 참여와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임을 주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만남이 중첩된 커뮤니티는 비대면으로만 존재하는 익명의 만남과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SNS 플랫폼 사용자들의 관계 맺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중첩되며 나타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proximity)이 강하게 전제되던 전통적 이웃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플랫폼과 도시가 만나는 접점에서의 다양한 관계 맺기 양상 파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기준 연령인 만 19~39세의 청년 중 1인 가구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다.<sup>10)</sup> 2021년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 대비 약 18%가 증가(국가지표체계, 2022)했으며, 그중에서도 20~30대가 30% 이



상을 차지한다는 점(KOSIS, 2022), 1인 가구와 관련해 외로움이나 고립이 주요 키워드로 대두되며,<sup>11)</sup> 고독사 중 청년의 비율이 6.3~8.4%로 매년 증가(보건복지부, 2021)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한 대상군이라 판단하였다.

SNS 매개 이웃을 밝혀내기 위해 '물리적으로 인접한 이웃'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전통적 개념의 이웃'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근현대의 전통적인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웃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동네'를 근린과 같이 공간적 영역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행정구역상 동 단위보다 작은 6km 반경에서 동네를 설정하고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당근마켓'이다. '동네 소셜미디어'라 불리기도 하는 당근마켓은 지역 생활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동네생활'과 '내 근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들어서는 '동네생활'에서 이루어지던 소통이<sup>12)</sup> 확대 및 세

---

10) 청년 연령에 관한 정의는 법,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만 15세에서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따른 청년 연령도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인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11) 서울연구원(2021)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의 외로움 비율이 62.1%, 사회적 고립 비율은 13.6%, 이를 동시에 겪는 비율이 12.8%이다. 그중에서도 청년은 취업 상태가 외로움의 감정과 밀접하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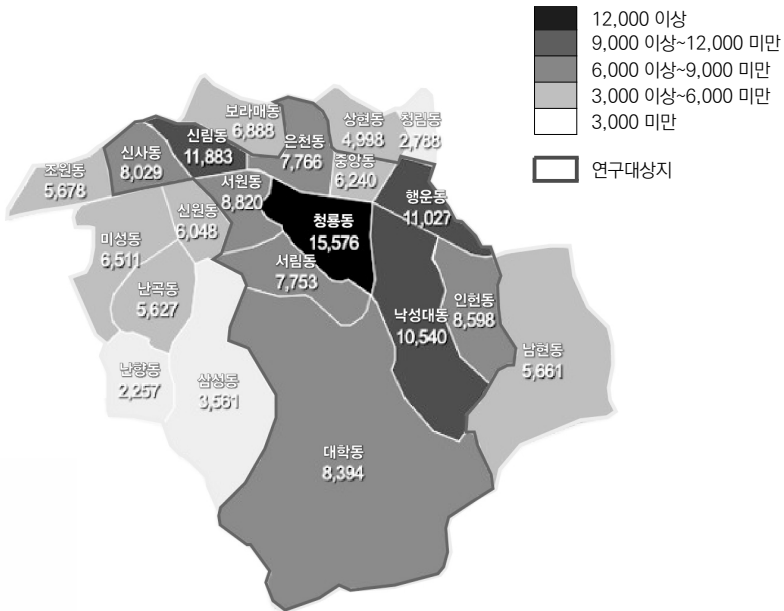
12) '동네생활'이라는 카테고리 들어가면 '동네질문', '동네소식', '분실/실종', '해주세요', '교육/학원' 등의 관심 주제에 맞는 이웃의 게시글을 볼 수도 있다. 업로드되는 글의 내용은 동네 단 골가게 관련 소식이나 정보 문의, 자신의 일상 공유, 현재 감정 상태를 올려 공감을 받는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동네에서의 만남을 추진하는 게시글'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2살 여학생이 함께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할 때래 여자 친구를 구하거나, 코인노래방에 같이 갈 사람을 찾기도 한다. 혼밥이 지겨워 같이 저녁을 먹었으면 하는 사람부터 함께 동네 밤 산책을 나설 주민을 구하기도 한다. 동네 이웃이자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당근마켓은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매개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김재영, 2021).

분화되어 ‘같이사요(공동구매)’, ‘같이해요(모임)’ 기능이 추가되었다. 사용자의 수요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 측면에서도 ‘지역 커뮤니티와 관계’에 대한 수요 가능성이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

## 2) 공간적 범위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로 선정하였다. 2022년 4월 기준, 서울시 청년 인구 2,937,355명 중 7%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구 내 인구 구성도 40.9%로 청년이 가장 많다.

〈그림 1〉 관악구 행정동별 청년 인구 및 연구 대상지(단위: 명)



자료: 통계청(202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관악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53.6%인데, 그중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66.3%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관악구 21개 행정동 중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 동(청룡동, 신림동, 행운동, 서원동, 인현동, 대학동, 은천동, 서림동, 신사동, 낙성대동)과 청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중앙동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11개의 행정동을 참여자 모집 대상지로 선정했다.<sup>13)</sup> 그러나 가상 공동체와 현실 공동체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이웃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오프라인의 만남 조사 범위는 11개 행정동에 국한하지 않고 당근마켓 SNS가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에서 일어난 활동 데이터를 포함해 수집하였다.

### 3) 연구 방법

#### (1) 자료의 수집 및 연구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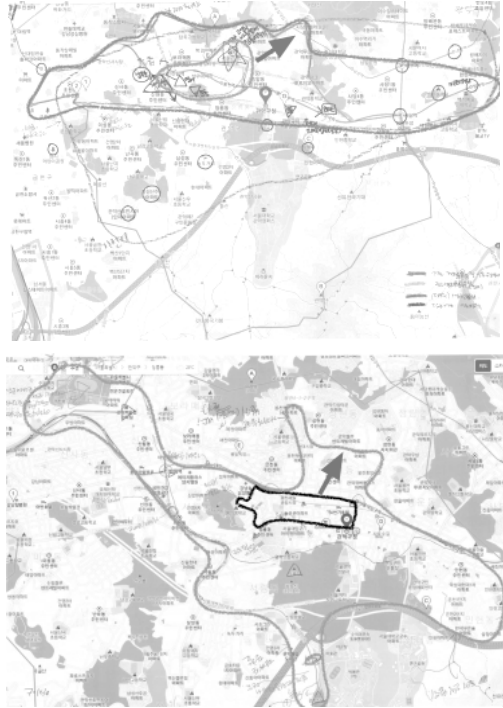
본 논문은 기존의 이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역 내 관계의 동기와 발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인터뷰 중심의 질적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일대일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의 반(半)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연구원은 면담 전 참여자에게 연구 소개 및 녹취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sup>14)</sup> 인터뷰는 평균 1시간 30분~2시간 소요되었다. 심층 면담에서

---

13) 2022년 3월 기준 관악구 연령별 인구 현황으로 확인한 관악구 11개 행정동의 만 20~39세 청년 인구 및 밀도는 다음과 같다.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10개 행정동은 청룡동 18,604명(15,766명/km<sup>2</sup>), 신림동 14,644명(27,119명/km<sup>2</sup>), 행운동 13,538명(18,803명/km<sup>2</sup>), 서원동 11,051명(17,002명/km<sup>2</sup>), 인현동 10,792명(9,993명/km<sup>2</sup>), 대학동 10,792명(1,272명/km<sup>2</sup>), 은천동 10,335명(13,250명/km<sup>2</sup>), 서림동 9,957명(10,058명/km<sup>2</sup>), 신사동 9,919명(15,498명/km<sup>2</sup>), 낙성대동 9,144명(4,028명/km<sup>2</sup>)이며, 면적 대비 청년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행정동인 중앙동 7,546명(19,349명/km<sup>2</sup>)을 추가하였다.

14)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2022년 7월 6일 최종 승인되었다(IRB No. 2207/002-005).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연구에 참여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참여에 동의하여 조사 과정에서 중지 의사가 생기면 언제든지 중단할

〈그림 2〉 동네 인식 범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심상지도 작업 예시



자료: 동네 지도에 연구 참여자 작성.

사용된 주요 질문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해 관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만남으로의 연결 양상과 관계 형성 과정, 이웃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후 녹취록을 작성하고 동료 연구자와 함께 의미단위(meaning unit) 기반으로 경험을 나누어 계속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가장 적합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동네 심상지도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심상지도(Mental Map)는 “장소들의 심리학적 재현(the psychological representation of PLACES)”을 의

---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미하며, 개개인이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최재영·유수진, 2019 재인용). 이로써 연구 참여자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한 관계로 인해 도시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역 내 교류 활동 전후에 따른 동네 인식 범위를 각각 그리고, 교류하게 된 이웃의 대략적인 주거지 위치나 만났던 장소 및 활동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게 하였다. 당근마켓의 중심 기능인 중고 거래가 이루어졌던 위치를 함께 기재하여 동네 범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았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당근마켓의 ‘동네 소식’과 ‘당근 알바’ 게시판에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참여 기준을 밝히고 일정 금액의 사례를 하는 조건으로 공개 게시하였다. 구체적 참여 기준은 (a) 1인 가구 청년(만 19세~39세)이자 (b) 관악구 11개 행정동 내 거주자, (c) 중고 거래를 제외한 오프라인 만남을 3회 이상 가진 사람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개별 채팅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참여자는 22명(여 11명, 남 11명)이다. 평균 연령은 30.6세이며, 20세부터 39세까지 고르게 분포한다. 거주 기간은 본가로 인해 장기간 관악구에 거주한 참여자부터 입시, 진학, 직장 등의 이유로 관악구에 전입한 청년 등 다양하다. 직업은 근로자(11명), 학생(4명), 취업준비생(7명)으로 구분된다.<sup>15)</sup>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4명은 관악구 본가에서 분가한 상태이고, 미응답 4명을 제외한 14명의 청년은 경기도 혹은 지방 도시에서 관악구로 독립한 경우였다.

---

15) 직업 구분은 청년 니트(NEET,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 청년 구직활동의 특성과 유형을 다룬 연구(Lee, Park and Chung, 2010)를 참고하여 ① 학생, ② 취업준비생, ③ 근로자(직장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취업준비생에는 이직·취업 및 유학 준비, 수험생 등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청년이 해당된다.

〈표 1〉 연구 참여자 개요

이름	출생 연도	성별	직업	행정동	본가 주소지	주거 유형	거주 기간 (년.개월)
A	1999	여	학생	봉천동	경기도 의왕시	다세대·다가구(원룸)	1.1
B	1984	여	취업준비생	인현동	서울시 관악구	다세대·다가구(원룸)	4.5
C	1992	여	근로자(프리랜서)	봉천동	서울시 관악구	연립주택	26.0
D	1988	여	근로자(프리랜서)	봉천동	경기도 군포시	다세대·다가구(원룸)	11.3
E	1994	남	근로자 (공무원)	서림동	울산광역시	다세대·다가구(원룸)	3.0
F	2002	여	학생(유학준비생)	청룡동	서울시 관악구	오피스텔	2.0
G	1987	남	취업준비생(공시생)	서림동	-	다세대·다가구(원룸)	11.0
H	1992	여	근로자(치료사)	청룡동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	5.0
I	1991	여	근로자(학원강사)	낙성대동	지방 도시	다세대·다가구(원룸)	4.0
J	1993	여	취업준비생	행운동	부산광역시	다세대·다가구(투룸)	1.0
K	1994	남	근로자(아르바이트)	서원동	경기도 파주시	다세대·다가구(원룸)	0.5
L	1993	남	취업준비생	신림동	경기도 안양시	다세대·다가구(원룸)	8.0
M	1992	남	근로자(회사원)	중앙동	경기도 일산시	오피스텔	7.0
N	1985	남	근로자(자영업)	신원동	-	오피스텔	7.0
O	1990	남	근로자(회사원)	삼성동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	20.0
P	1995	여	학생	낙성대동	광주광역시	다세대·다가구(원룸)	3.0
Q	1994	남	근로자(아르바이트)	봉천동	경기도 의정부시	다세대·다가구(투룸)	5.0
R	2000	여	취업준비생	대학동	부산광역시	다세대·다가구(원룸)	1.0
S	1986	남	취업준비생(아르바이트)	신림/대학동	-	다세대·다가구(투룸)	5.0
T	1996	남	학생	중앙동	-	다세대·다가구(원룸)	0.5
U	1995	남	취업준비생(고시생)	대학동	세종특별자치시	다세대·다가구(원룸)	0.8
V	1991	여	근로자(회사원)	청룡동	경기도 안산시	오피스텔	2.5
총계	평균 30.6세	여(11) 남(11) 총22명	학생(4), 근로자(11) 취업준비생(7)	-	서울시(4) 경기도(8) 지방도시(6) 미응답(4)	다세대·다가구(15), 연립주택(1), 오피스 텔(5), 아파트(1)	평균 5년 9개월

주: '총계'의 괄호 안의 숫자는 인원수를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4. 분석 결과

### 1) SNS를 통한 동네에서의 교류 양상

본 연구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만남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면 만남을 갖기 전에 SNS상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상대방에 대한 검증<sup>16)</sup> 과정을 거친다. 가까운 사이가 되거나 서로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개인 신상을 공유하지 않고, 첫 대면 만남 시에도 대체로 이름 대신 닉네임을 부르며, 집은 대략적인 위치만 알려준다.

빈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기목적 달성을 위한 일회성 만남과 정기적인 교류를 위한 다회성 만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회성 만남은 의식주와 연관된 필수 활동인 ‘함께 밥 먹기’를 포함하여 여가 생활의 일환인 커피·술 마시기, 영화·뮤지컬 보기, 노래방 가기 등이 있다. 함께 운동하거나 공부하면서 각자의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별레 잡는 일 등 일상 문제의 해결 측면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목적하던 활동이 끝난 뒤에도 가볍게 대화를 나누거나 차를 한 잔 마시고 밥 먹는 2차 활동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때로는 한 번 만난 뒤에 대면 만남을 지속하지는 않더라도 인스타그램 등에서 상대방의 포스트에 하트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연락을 이어가기도 한다.

정기적인 교류는 취업 준비, 운동, 반려견 산책시키기, 동네 친구 만들기 등 공통의 관심사가 존재하거나, 목적성이 분명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일회성 만남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를 만난 경우 만남을 이어가기도 한다. 실질적인

---

16) 특정 연령대나 성별과 같이 SNS 채팅 참여 조건이 충족된 후에도 상대방의 성향이나 취향 등을 탐색한다. 채팅방에서의 말투나 태도도 중요한 선별 기준이며, 평소 판매해 온 물품의 종류나 타인의 평가(당근마켓의 경우 ‘온도’)를 확인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온라인 환경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현상의 발현이라 볼 수 있다.

도움을 주고받았던 경험은 이사 시 음식 보관, 잃어버린 핸드폰 찾기, 이삿짐 나르기, 대신 택배 받아주기, 본가에서 받은 음식 나누기, 음식 같이 시켜서 배달비 아끼기 등 다양했다. 여느 관계가 그렇듯 1년 이상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는 참여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거나 만족과 즐거움을 느낄 때였고, 대체로 동갑이나 또래인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모임이 1~2개로 추려져 충분한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일회성 만남을 추가적으로 시도하지 않거나 횟수를 현저히 줄인다.

## 2) SNS를 통한 지역 내 교류의 작동 배경

2022년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웃 및 동네 관련 인식조사<sup>17)</sup>에 의하면 이웃과 인사 이상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2.7%이며, 교류하지 않아도 불편한 일이 없다는 응답은 50.8%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웃사촌의 의미가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도 56.9%였는데, 특히 1인 가구(75.0%)와 오피스텔 거주자(84.3%)일수록 강하게 동의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웃 관계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SNS를 통해 충분히 취향 공동체와 같은 만남을 조직할 수 있음에도 왜 '동네'에서 만남을 갖는가?

연구 참여자에 의하면 그 이유는 크게 대인관계(55.37%), 목적성 오락(41.52%), 물리적 공간의 열악함(3.07%)으로 구분<sup>18)</sup>된다(표 3) 참조). 그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관계' 항목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17) 최승은, "[트렌드모니터] 희미해진 '이웃사촌', 사라진 '우리동네'... 지역 공동체보다 삶의 편의성이 더 중요해". 《매드타임스(MADTimes)》, 2022.08.11.

18) 기존 연구에서 SNS 이용 동기를 대인관계, 정보, 자가지위, 오락 추구로 구분하거나(Park, Kee and Valenzuela, 2009; 이정화, 2019; 한남식·여성연, 2021), 사회적 작용, 정보 추구, 자아 표현, 오락적 동기,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로 구분(박영아, 2014)한 것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목적성 오락, 물리적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표 3〉 SNS를 통한 지역 내 교류 동기

번호	내용	특성 분류
1	동네에 아는 사람 또는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없어서	대인관계
2	외로운 감정이 들어서	
3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들어서	
4	심심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목적성 오락
5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	
6	(식사, 운동 등의 활동을)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서	
7	계획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8	무료한 삶에 활력과 흥미를 얻고 싶어서, 동기부여를 얻고 싶어서	물리적 공간
9	마음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집이 좁아 답답하고 나가고 싶어서	

자료: 저자 작성.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가가 지방 도시인 경우, 관악구는 인적 네트워크가 부재한 낯선 지역이며, 그들의 거처는 도심 속 외딴 섬으로 묘사될 수 있다. 22명의 청년 중 18명은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해 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관악구에 본가가 있는 두 명의 청년은 학령기에 해외 유학을 다녀와 동네 친구가 없었다. 대학교 친구들이 졸업 후 타지로 이동하면서 관악구에 ‘남겨진’ 경우도 세 명에 해당했다. 평소 당근마켓 외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네트워크 중심의 SNS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욕구를 대면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동네 주민과는 ‘같은 동네, 인접한 거주지’라는 점 외에 별다른 공통 요소가 없더라도 같은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 청년들은 처음 보는 사이라도 동네 맛집이나 각종 지역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간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비교적 거주 비용이 저렴한 관악구<sup>19)</sup>의 경우 이웃이 자신과 경제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측할

19) 서울시 주요 동네의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용 면적 30m<sup>2</sup>이하 평균 임대료가 44만 원일 때, 서울대입구역 부근은 41만 원 수준이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 월세 평균이 66만 원인데, 60만 원 이하인 동네로 서울대입구역(54만 원), 가산디지털단지(50만 원), 암사역(51만 원), 공릉역

수 있다.

동네에서의 만남은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도움은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집에 에어컨을 켜고 나온 것 같거나 불을 켜고 나온 것 같을 때 확인할 방법이나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찝찝한 마음일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신용)카드같이 사람이 직접 수령해야 할 때. 알고 지내는 사람이 근거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청년 1)

### 3) SNS가 만들어 낸 새로운 방식의 이웃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난 사람’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은 16명,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이었다. 주로 또래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이웃이자 친구라고 인식하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 내 관계를 가능하게 한 소셜 플랫폼의 특징과 관계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탐색 과정의 특징

##### ① 사생활을 지키는 거리에서 대상을 ‘선택’하기

소셜 플랫폼은 다방면으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개인정보를 모두 드러내지 않으면서 원하는 만큼만 노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특유의 익명성은 개인의 신분을 여러

---

(41만 원), 신도림역(53만 원), 불광역(58만 원), 마곡나루역(57만 원)이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23, HOMES, 2023).

개로 만들거나 정보를 감출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겹겹의 보호막을 형성한다.

둘째, SNS는 개인의 사적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거리감을 확보한 채로 동네 주민을 만날 수 있게 한다. 물리적 근접성이 높으면 주거지 내-외부의 시각 및 동선 연속성이 증가해 거주자 간의 친밀한 교류가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있다(정유진, 2014: 33 재인용). 그러나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마추침 만으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편한 감정과 안전에의 위협을 느끼게 해 교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원룸과 오피스텔의 내부 환경적 열악함은 생활상의 불편함을 넘어 인접한 이웃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의 다가구 원룸은 생활 소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sup>20)</sup>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샤워 소리나 전자레인지 돌리는 소리, 통화 음성 등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이 드러나기 쉽다. 이처럼 반강제적으로 공유되는 사생활의 노출은 서로를 불편한 존재로 만든다. 또한 누수, 택배 분실, 소음에 대한 불평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 이웃을 만나게 된다.

청년은 집이 도시의 수많은 만남과 자극 속에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사적 공간(personal space)<sup>21)</sup>이 되기를 바란다. 쾌적한 거주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한두 칸의 공간은 옳전한 '자신만의 영역(territory)'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거리에서, 개인이 구축해 놓은 일상에 개입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과 같이 너무 가깝지

20)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과 고시원에서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관악구에는 2014년 이전에 건축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77.9%에 육박한다(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022).

21) 고프먼(Goffman)은 인간이 자신만의 전유영역(preserve)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고 보았다. 고착된(fixed) 전유영역, 상황적(situational) 전유영역, 에고중심적(ego-centric) 전유영역으로 구성된 '자아의 영토'인 셈이다. 그중 에고 중심적 전유영역은 자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비교착형으로 타인의 영역과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만의 에고중심적 전유영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최종렬, 2022: 98~99 재인용). 일정 비용을 내고 거주하는 공간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신만의 사적 공간(personal space)으로, 공간에 대한 권리를 극대화하려는 욕구를 갖게 한다.

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가 청년들의 이상적인 이웃이다. 동네라고 언급한 공간적 범위인 ‘지하철 한두 정거장, 도보로 15~20분 이내의 거리’가 적절한 거리감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신뢰가 쌓이고 친밀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다’는 인터뷰 응답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룸이다 보니 방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한다는 게 불편해요. 내가 무엇을 듣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언제 씻는지 등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인근에 사는 사람은 서로 모르고 낯인 상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게임에서 NPC(Non-Player Character)<sup>22)</sup> 같은 사람이죠. 복도에서 지나가면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요. (청년 R)

이웃은 필요하고, 누구나 이웃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근하게 지내는 사이가 좋고, 나만의 고착화된 루틴(출근, 과외 등)을 깨지 않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면 좋겠어요. (청년 M)

셋째, 가까운 곳에 사는 ‘주어진 이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맞는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이 발휘된다. 인접한 이웃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다. 신뢰의 부재는 정보의 부재와 결합되어 있다(정민우, 2011: 215). 신뢰가 확인되지 않은 이웃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류와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서로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행위는 ‘시선의 회피’, ‘마주침

---

22) NPC는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 없는 게임 캐릭터로, 플레이어와 함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배경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이다(네이버 오픈사전Pro, 2023년 6월 27일 검색). 이는 타자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이방인으로 대우하는 ‘비인간 지위(status of nonperson)’와 비슷한 맥락에 위치한다(이수안 외, 2013: 49~84).

의 최소화'로 나타난다. 이는 불안정과 불확실 속에 거주하는 도시인이 만들어 낸 방어 메커니즘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윤명희, 2009: 116~118 재인용). 특히 1인 가구 여성의 경우 남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따라서 인증이 된 사람을 만나거나, 만날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소셜 플랫폼은 다각도의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이웃이 기존에 남겼던 글의 흔적이나 플랫폼 자체에서 설정한 인증제도(당근 온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채팅방에서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판매하는 물품이 중장년 세대의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면 대면 만남을 추진하지 않았다. 선호하는 연령대나 성별도 다양한데, 대체로 공감대가 많은 '또래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다. 여성의 경우 동성 친구를 선호했고,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인이나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피하고자 했다.

옆에 누가 사는지는 알지만 이웃이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저에게) 해가 갈지 안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이 살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많아져요. 이사하고 나면 강아지가 짖을 수 있다고 문고리에 걸어둬요. 성별을 유추하지 못하도록 자필로 안 적고 무조건 프린트하고. (청년 H)

처음에 (당근마켓에) 들어가면 당근 자체 채팅방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시점부터 채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대화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 모임이 어떤 느낌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청년 P)

쓰는 어휘나 맞춤법 같은 걸 봐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걸러요. 유쾌한 말투와 목적성이 맞는 모임에 가면 유쾌한 경우가 많아요. (청년 M)

여자인 걸 티 내지 않아요. 딱딱하게 말하는 거죠. 이성만 찾는 사람들을 거르고 싶어서요. (청년 A)

## ② 개인의 일상 틈새에 끼워넣을 수 있는 ‘즉시성’

인접한 이웃과는 친밀도가 높은 경우일지라도 각자의 상황이 맞지 않으면 즉석에서 만날 수 없다. 반상회와 같이 계획된 모임으로 만나거나, 복도나 계단, 외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셜 플랫폼으로 맺어진 동네 관계는 원할 때 바로 만날 수 있어 각자의 욕구를 짧은 시간 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동아리·친구 모임과 차별화되는 점은 참여자들의 거주지가 멀지 않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까이 살지 않는 친구들과는 한 번 만나려면 시간과 장소 조율이 까다롭지만 이웃은 편한 옷차림으로, 적은 이동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하는 때에 만날 수 있다. 일상은 미리 계획하거나 체계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그날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 즉석에서 결정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소셜 플랫폼이 매개체로서 빛을 발한다. 특히 식사하거나 퇴근 후 산책하기 등은 일정한 시간대에 유사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함께할 대상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Covid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주거지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만남의 빈도와 가치가 높아졌다. 일상 패턴을 유지하면서 틈새를 활용해 즉흥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점, 만남 직전에 약속을 잡기 때문에 성사율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준비 안 하고 바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은 것 같아요. (청년 U)

제가 서울대입구에서 모임을 열면, 신림도 가까운 데 신림 사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오거든요.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은 막 나온단 말이예요. 이게 동 모임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세분화가 되어서 자기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을 더 만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청년 V)

## ③ ‘교환가치’를 획득함으로써 배려나 희생을 기대하지 않는 이해관계

온라인을 통한 대다수의 만남은 원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눈치 보는 등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합의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동네 만남이기 때문에 약속 장소를 잡는 데에 부담이 없으며, 상대방의 이동 거리나 시간에 대한 배려나 걱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이 모인다는 점에서 서로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기도 한다.

SNS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를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인접한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언젠가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또한 도움을 받은 이후에는 서로가 ‘비인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마주칠 때마다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눈인사를 하는 등 무관심을 실천하기 어려워진다는 점(Goffman, 1963: 124; 최종렬, 2022: 72)에서 감정작업(emotion-work)<sup>23)</sup>의 대상을 늘리는 꼴이 된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불해 그에 대한 대가로 도움을 받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청년들의 진술은 관계 사이의 전인격성을 제거한 일시적 이해관계가 더욱 편하고 쿨(cool)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화폐경제 속에서 창출된 강력한 개인주의(집멜, 2005) 혹은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가 바꾸어 놓은 인간관계의 양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과 커뮤니티가 ‘개인 지향성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모색된다는 점(윤명희, 2008) 또한 이러한 양상을 뒷받침한다.

친구와 산책을 하게 되면 눈치를 봐야 해요. 강아지의 컨디션, 친구의 컨디션을 모두 고려해야 하다 보니. 당근마켓에서는 목적에 맞게 만나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

23) 이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례(interpersonal rituals)’ 중 하나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주거지에서 만나는 이웃과는 의례나 감정작업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어요. (청년 C)

도움을 부탁하면 해주시긴 할 텐데, 무언가 귀찮아질 것 같아서.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인사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J)

만약에 직장 상사였다면 네 살 많은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는 동등한 관계로 만나는 거니까... 계급적인 부분 없이 동네 친구로 만날 수 있으니까 편하죠. 어떤 사람은 영어 선생님이고, 어떤 사람은 기자고. 이런 장점들이 다 있으니까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부담이 없어요. (청년 V)

## (2)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적 특징

### ① 사회적 역할을 배제한 '현재성'을 중심으로 관계 맺기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관계의 특성상 서로의 성장배경이나 학력 등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없다.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오가는 대화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서로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기대치가 없으며, 주변에 연관된 사람들이 없다는 점에서 선입견 없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다.

온라인 매개 이웃은 개인의 과도기적 상황을 편하게 개방할 수 있는 대상이 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취업 혹은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파서 일을 쉬는 경우와 같이 이렇다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동네 이웃은 '보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과는 함께 시간을 보냈던 특정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며, 관계가 지속될 것을 감안하여 적당히 자신을 포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주지에서 만나는 사람과는 눈치 보지 않고 '현재의 나'로서 상황을 털어놓기가 쉽다. 이러한 면모는 전통적 개념의 이웃을 중심으로 한 동네 생활이 '체면'과 '연극적 성격'을 띠게



했다<sup>24)</sup>는 사실을 역으로 인지하게 한다.

모르는 사람은 내가 처음 듣는 시선으로 얘기해 주기도 해요. 친구들한테 못 하는 얘기도 하게 되고요. 두 번 볼 사람이 아니라… (청년 A)

공부하는 시기이다 보니 (학창 시절의 친구를) 만나는 것에 부담이 있어요. 다 일하고 바쁘고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만나기 귀찮아요. 취업하고 나면 (친구를) 만나러 갈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생길 것 같아요. (청년 J)

## ② 일회성 만남이 이야기하는 관계의 가벼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면 만남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 채 피상적인 대화만 나눈다. 쉽게 연락을 차단할 수 있으며, 계정을 탈퇴한 뒤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동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초기에는 휘발성 관계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한순간의 필요를 충족하고 마는 ‘적당히 좋은 감정으로 놀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에 익숙해진다. 이 과정에서 오랜 친구와 동네 이웃의 역할과 한계가 구분되고, 관계별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범위 또한 명확해진다.

이질감이 있으면서도 편한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서로 간을 안 보거든요. 만났다가 맘에 안 들고 재미도 없어, 그러면 연락을 끊고 안 봐도 지장이 없으니까 부담감이 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 상대방도 알아들을 수 있고

---

24) 마을은 1970년대 말 크루아루스의 거리를 체면의 공간으로 분석했다. 이는 좁은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하는 감시와 검열, 험담과 같은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취하게 되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조르주 뒤비, 2006, 『사생활의 역사 5: 제1차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3. 이웃에서 대도시로, 체면의 공간들).

요. 좀 더 맺고 끊음이 쉽다고 할까요? (청년 Q)

관계의 휘발성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반복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알맹이가 없는 만남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허무함, 진짜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여전히 없다는 생각 등 철저히 혼자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체념하거나 관계 맺기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참 좀 친하게 지냈다가 별로인 것 같아서 끊은 사람이 있는데 낙성대 갈 일은 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갈 일이 생겼다고 하면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만나면 좀 꺾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단점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활발하게 (동네 지인을 만들어서)해서 동네마다 아는 사람들 다 심어놓게 되면은 결국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청년 O)

당근에서 만나고 헤어진 관계들 때문에 나이를 헛산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고... 사람이 다 싫어지기도 해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나이 들어도 다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내 멘탈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청년 D)

동네에서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이유에는 관악구라는 지역적 특수성도 존재한다. 청년들은 ‘거쳐 가는 동네’, 취업하거나 가정을 꾸린 뒤에는 ‘떠날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독립을 위해 ‘거쳐 가는 이행기적 공간’이자 ‘전략적 인내의 공간’(정민우, 2011: 33)인 것이다. 유흥 중심의 상업지구나 빌라촌, 높은 경사, 밤마다 소리 지르는 이상한 이웃 등이 거주 애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동네에서 만난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귀결된다.

### ③ 관심사 중심의 지역 공동체 형성

육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지역 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청년 1인 가구는 각자의 취향과 취미를 중심으로 모인다. 지역 내 의제 해결의 측면에서도 주거 관련 문제보다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동네 여성들이 온라인으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밥을 주거나, 경비원과의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있었다. 모임 운영 능력이 탁월해 스스로를 ‘커뮤니티 기획자’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은 관악구의 예산을 연계해 또래 여성과 옷 나눔 바자회를 열거나 플로깅 활동으로 기부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거주지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회자본을 강화하고, 지역 애착을 높인다는 점(퍼트넨, 2009)에서 크고 작은 참여의 움직임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대체로 청년 1인 가구는 개인적 만족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과 변화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또한 동네라는 공간적 범위 제한 없이 모인 취향 중심 공동체에 비해서는 팬덤(fandom)의 강도가 낮거나, 충분한 인원이 모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리적 영역을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통의 연대(common ties)가 발생한다는 점(Hillery, 1955; 강대기, 2001)에서 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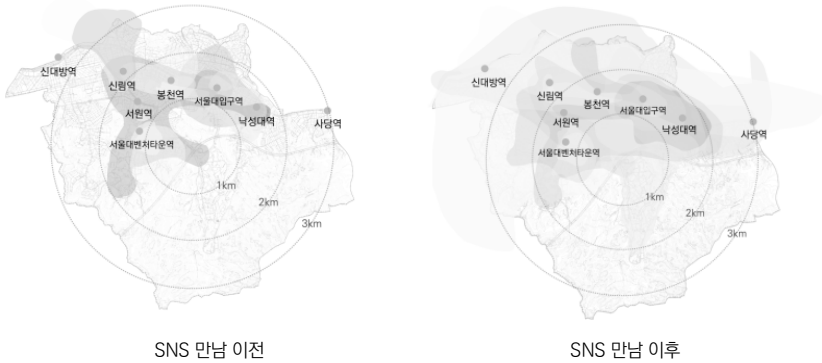
## 4) SNS를 통한 사회적 교류의 잠재력과 논의점

### (1) 동네에서의 ‘일상 구축’을 통한 ‘거주(dwelling)’에의 매개자, 이웃

이직과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이동이 잦은 청년들은 한 장소에 정착하기 어렵다. 이때 소셜 플랫폼은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지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게 돕는 정착의 매개가 된다. 이때 ‘정착’은 단순히 이사를 완료했다는 의미를 넘어, 진정으로 새로운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에서의 생활은 스펙타클하거나 인

스타그래머블(instagramable)<sup>25)</sup>한 이미지를 연출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일상의 반복을 실행하는 삶의 근간이 된다. SNS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혼자서는 방문하기 어려웠던 가게를 이웃과 함께 가거나, 각자의 산책 코스를 공유하기도 하고, 평소보다 더 긴 시간 운동할 수 있게 된다. 혼자일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동네에서의 활동 영역이 빠르고 넓게 확장된다. 이는 1인 가구 청년들이 그린 심상지도의 중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작업에 참여한 16명의 청년 중 SNS를 통한 지역 만남 전후의 ‘동네 인식 범위’가 비슷하다고 응답한 3명을 제외하고는, 최소 1km 이내에서 많게는 3km 이상 확장되었다. 중고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를 동네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보다는 이웃과 만남을 갖고 추억을 쌓았던 장소를 중심으로 영역이 설정되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동네에 정이 들고 애착심이 형성

〈그림 3〉 참여자별 동네 인식 범위 맵핑



자료: 연구 참여자들의 심상지도를 중첩해 저자 작성.

25)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할 수 있는(-able)’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라는 뜻의 신조어이다.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sup>26)</sup> 관악구 거주 이전에 상상하던 ‘더럽고 위험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이 거쳐 가는 정류장 같은 독특한 풍경’, ‘살 만한 곳, 추천하고 싶은 지역’의 이미지로 변하기도 했다.

이웃 관계가 동네라는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네의 인식적 범위 확장은 ‘나의 이웃’으로 체감하는 범위 또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동훈(2011: 28)은 ‘새로운 장소에 깃드는 행위는 이웃과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과의 관계가 살아가는 장소를 구체화하고 인식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고 보았다. 불노의 공간과 거주를 현상학적으로 고찰한 김재철(2009: 368)은 이웃이 수학적-물리적 공간과 양적 시간이 아닌, 체험 공간에서의 시간의 나눔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다. 즉 물리적 공간에서 각자의 역할 수행에 집중하며 관련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일차적 활용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장소에 대한 심상적 이미지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27)</sup> 즉 동네에서 이웃을 알아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거주지를 완벽하게 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이웃은 아무런 연고 없이 정착한 거주지에 익숙한 관계와 장소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진정한 ‘거주’의 의미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게 한다.

26) 당근을 하기 전에는 이 동네에 산 시간이 훨씬 긴데(2년 반), 그동안에는 동네에 크게 정이 든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사람 사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네 정보도 당근 맛집 정보 보고 갔거든요. 그런 거(당근모임/생활) 하면서 동네에 정이 들고 살기 편찮은 동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청년 P)

27) 투안은 파스테르나크(Boris Pasternak)소설을 예로 들면서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의지를 방해할 때 그 공간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되며 공간적 압박을 불러온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예로는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란 부족은 의식적으로 공간을 구조화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유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재능과 용기를 발휘해 온 에스키모인은 황량한 환경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구조화되지 않은 공간에 대처하는 공간적 능력을 갖는다(투안, 1995: 110, 132). 즉 사회적 구조와 관계가 공간을 인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며,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공간감이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제공함을 유추할 수 있다.

## (2) 동네 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세계관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SNS

청년들이 활동 과정에서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도 했다. 미시적으로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거시적으로는 인간 군상까지도 포함한다. 청년들은 몇 차례의 대면 만남 이후에 동네에서 스쳐 지나가던 '막연한 타인'이 알고 보면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자 '내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시민적 무관심으로 점철된 거주지 주변 익명의 타인을 자신과 같은 한 인간이자 이웃으로 현화(現化)시킨 것이다. 비록 일회성의 만남 일지라도 조우(encounter)의 순간이 쌓이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웃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사실을 체감한다. 이는 동네 활동 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차원의 이점으로 작용한다.

대체로 학교나 직장과 같이 목적이 명확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학력이나 배경지식,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다. 반면 공간적 공통점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에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 성장배경의 사람을 경험할 수 있다. 이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 군상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형성<sup>28)</sup>한다. 이러한 계기는 SNS가 동네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를 '이웃'으로 명명해 증고 물품 또는 동네 활동을 매개로 연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

28) 친구들끼리는 비슷비슷한 사람이고,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모임에서는 천차만별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견문이 넓어지는 느낌? (청년 U)

학교에서는 비슷한 점의 사람과 친해지는데, 당근에서는 아예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대부분 90%가 공대생이어서 다른 전공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져요 (청년 O)

당근에서 만나면 청소 아저씨, 범죄자, 건물주, 기초수급자도 만날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나의 지식도 늘어나고, 재미도 있고, 시간도 보내고. (청년 E)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데, 이는 퍼트넘(2009)과 후쿠야마(1996)가 강조한 사회자본의 기본 조건이 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이익<sup>29)</sup>뿐 아니라 집단적이고 공적인 이익을 함께 창출한다. 관련 연구에서 언급하듯이 신뢰로부터 보이지 않는 공동의 유대가 쌓이면 아노미나 비도덕적 개인주의 등의 부정적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서순탁, 2002; 퍼트넘, 2009; Coleman, 1990). 이는 상호 호혜로 확장되어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익명의 타인에게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태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3) SNS를 통해 '이상적인 이웃'을 실현해 나가는 1인 가구 청년

삶의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서로 간에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웃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역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 차원의 모든 필요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다. 이때 청년 1인 가구는 가족 내에서 이웃 관계를 주도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인 가족의 중년 여성이 지역 내에서 관계 맺는 방식과는 다르게, 청년 1인 가구는 '개인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활동의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세대별, 생애주기별로 이상적인 이웃 상(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년 1인 가구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그들에게 필요한 '이상적인 이웃'을 만나고 관계를 구축하는 매개로 사용된다. 인터뷰 시 답변한 것처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친밀감과 동질성이 느껴지는 사람, 즉석에서 만나 각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인간성이 좋거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다.

---

29) 직장을 구하거나 정보를 얻을 때 강한 유대를 지닌 관계보다 약한 유대의 관계가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Granovetter(1973)의 주장은 동네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획득하는 개인적 이익(private good)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웃과의 관계망은 또 다른 소속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특히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으로 불리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도기에 동네를 중심으로 한 친구나 스터디·자격증 모임은 미약하게나마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의 마지노선에 있을지라도 말이다. 이로부터 충분한 만족감을 얻은 경우에는 동네 이웃을 넘어 서울에서 새롭게 구축한 인적 자원이자 고향과 같은 관계로 자리매김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뒤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이유가 된다.<sup>30)</sup>

이상적인 이웃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동네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는 고정된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질적 차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수의 이웃과 만남을 지속하게 되면 일회성 만남을 그만두려는 경향이 이를 대변한다. 이런 점에서 SNS는 개인이 만족할 만한 이웃을 만날 때까지 양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5. 결론

메이로위츠(2018: 759)는 미디어의 진화가 물리적·사회적 장소를 재구조화하고 사회적 질서의 논리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이웃 관계도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었다. SNS가 동네의 수많은 사람 중 특정인을 선별하고, 만나고 해

---

30) 관악구에 살았다가 모임하면서 외부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다 (모임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친구가 생긴 것 자체로도 너무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분들은 본가가 아주 먼 분들인 것 같아요. (중략) 인천구나 강남 이런 쪽으로 (이사)가면 모임을 오시더라고요. (청년 V)



어지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매개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만남을 작동시키기 위해 인증 및 검증 장치를 도입한다. 온라인을 통해 구현되는 인간관계는 익명성을 통한 자유로움을 획득함과 동시에, 책임감 없는 휘발적 관계성을 띤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 실제 도시 공간과 관계 속에 일정 부분 녹아들면서 인식론적 측면 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자본 측면에서 지역 기반 SNS를 이해하자면 관계는 개방적 교량형(bridging)의 특징을, 동네 공간은 동질적 특성이 강조된 결속형(bonding)<sup>31)</sup>의 특징을 전제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동네 중심 SNS 활용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를 더욱 잘 살기’ 위한 것이다. 독립한 개인으로서 새롭게 꾸려가는 생활의 터전에 ‘발을 붙이는’ 과정에서 동네에 ‘정착’하는 도구가 온라인 플랫폼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사이버 세계가 아닌 물리적 공간 속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공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구축해 나간다. 온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 다양한 기억을 만듦으로써 개인은 전혀 다른 도시 이미지를 인식한다. 이는 플랫폼 어바니즘에서 최근까지 논의하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공간적 배경을 초월하는 탈지역성이나 장소 상실의 결과만을 도출하거나, 현존의 부재로 귀결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플랫폼 어바니즘에 더해 이웃의 가치와 필요성을 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SNS가 매개한 ‘사람과 관계’가 1인 가구 청년이 주거지에 정착해 나가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지역 커뮤니티와 이웃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홀로서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자 이행(transition) 단계를 지나는 1인 가구 청년은 거주지에서 매 끼니의 식사, 산책과 같이 일상적인 사안부터 진로의 준비, 학업과 관련한 중대사를 경험한다. 이때 그 과정을 함께하는 역할을 동네 관계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책임 의식과 지

---

31) 사회자본에서 설명하는 결속은 동질적인 행위자의 강하고 끈끈한 연결을 설명하며, 교량은 약하고 넓게 연결하는 개방적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속성이 약해 사회연결망을 구축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웃은 미세한 상호작용과 마주침, 작은 조우들이 개인을 자리 잡게 하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는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또한 관심사 기반의 지역 모임과 같이 실천적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하나의 역할로 다양한 관계적 효용을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웃의 필요성과 역할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청년이라는 생애주기·세대의 특성상 이웃 관계와의 연결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그 관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맺는 관계와 동네라는 영역이 1인 가구 청년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의 원류는 아파트 단지 영역과 같은 보호구역, 반사적 공간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의 긴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때 동네가 이행공간으로서 온전히 기능을 다하려면 그 속에서 적당한 내밀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회적 교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청년 지원정책 범위와 초점을 주거나 일자리 중심에서 관계를 포함한 삶의 질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초연결 시대에 재편되는 이웃의 역할과 양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호작용을 이웃 관계에 한정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관계를 연결망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개별 인터뷰에 그치고 있다는 점, 인터뷰 대상이 대체로 사회 교류에 적극적인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은둔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모수가 풍부한 서울시 관악구를 대상지로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이 강조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운 이웃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SNS를 통한 사회적 교류의 질적인 수준이나 관계망, 하이퍼로컬과 같은 공간 차원의 논의까지 확장해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새로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3.10.05.

1차심사완료일: 2023.11.09.

1차수정완료일: 2023.11.20.

2차심사완료일: 2023.11.21.

게재확정일: 2023.11.21.

최종원고접수일: 2023.11.28.

**Abstract****Can Social Media Transform Local Communities?: Focusing on the Neighborhood Relationships of Young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Yeonsu, Hamm · Ha-jung, Ko · Jihee, Park

This study examines the rising tendency of forming local connections via social media in an era where conventional perception of neighbours and their role have become ambiguous. Young adults' traits, who possess remarkable IT skills and are accustomed to creating and consuming culture in n virtual spaces, collaborate to create networks through social media. Two main research questions drive this study: firstly, what motivates the use of social media for building local communities, and second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benefits of neighborly relationships developed through these digital platforms. The results emphasize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young adults resid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perceptions of adjacent neighbors. Neighbors were not perceived as supportive or friendly due to a dearth of shared information, leading to heightened anxiety and a sense of threat simply from their presence. For these individuals, their living space represented a sanctuary, fiercely protected against intrusion or recognition by others. As a result, they were disinclined to disclose themselves or allow anyone inside their personal space, irrespective of the motives of others. In contrast, 'social media neighbours' exhibit unique qualities by providing a range of interaction options, enabling instant connections and forming relationships centred on exchange value - a demonstration of the mediated aspect of online platforms. While certain individuals encountered difficulties in maintaining enduring and intimate relationships through these interactions, they broadened their spatial awareness and strengthened attachment by exploring various encounters within their local area. Encounters with anonymous neighbors through social media converted these unknown individuals into relatable connections, exposing the variety within human communities. Establishing relationships via social media serving as a bridge to make sense of belonging in a place devoid of conventional ties—a temporary rooting and a means of remaining present

in an environment. We also need to revisit the meaning of community and neighborhood, as social media-mediated “people and relationships” play a key role in helping young adults in single-person households settle into neighborhoods.

**Keywords: Neighborhood, Social interaction, Local Communities,  
Young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Social Media(SNS)**

## 참고문헌

-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 강영안. 2015. 「이웃」. 《철학과 현실》, 통권 104호, 190~205쪽.
- 고프먼, 어빙(Erving Goffman). 2016. 『자아 연출의 사회학: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기하는가』. 진수미 옮김. 서울: 현암사.
- 곽현근. 2007. 「지방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준분석: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동네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1권 4호, 229~259쪽. UCI: I410-ECN-0102-2012-350-002477376
- 구선아·장원호. 2020. 「느슨한 사회적 연결을 원하는 취향공동체 증가 현상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통권57호, 65~89쪽. DOI: 10.26863/JKARG.2022.11.28.4.474
- 금재호. 2013. 「청년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리뷰》, 제4호, 66~82쪽.
- 김구. 2010.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온라인 활동의 영향성 탐색: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7권 4호, 5~44쪽.
- 김기홍. 2016. 「마을효과(Village effects)를 통한 마을 활성화: 거시적 미시적 마을효과의 통합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1권 1호, 105~130쪽.
- 김동훈. 2011. 「공간-마련과 깃들임의 사유: 하이데거 사유를 통해 본 도시 공간의 의미」. 《도시인문학연구》, 제3권 1호, 9~47쪽.
- 김미영·김지희. 2021. 「디지털 미디어 시대, '동네'의 의미: 서울지역 당근마켓 이용자의 동네 거래 및 동네 활동」.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113호, 7~35쪽. DOI: 10.46407/kjci.2022.06.113.7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제47권 2호, 27~52쪽.
- 김윤경·박남기. 2021. 「지역 기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이용이 커뮤니티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과 정서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8권 1호, 59~103쪽. DOI: 10.36494/JCAS.2021.03.38.1.59
- 김재영. 2021. 「초연결성은 어떻게 지역성과 만나나?: '당근마켓' 사례를 통한 탐색적 시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108권, 7~29쪽. DOI: 10.46407/kjci.2021.08.108.7
- 김재철. 2009. 「공간과 거주 현상학: 볼노오의 공간 이해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56권, 367~391쪽.
- 김태완·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권 244호, 6~19쪽.
- 김택규·정석. 2016.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활용한 공동체 프로그램참여자의 이웃관계 변화 분석: 서울시 성북구 3개 아파트 단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학회》, 제17권 3호, 71~88쪽.

- 뒤비, 조르주. 2006. 『사생활의 역사 5: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김기림 옮김. 서울: 새물결 출판사.
- 메이로위츠, 조슈아. 2018. 『장소감의 상실 II. 전자 미디어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병선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선경·김보정·하재명. 2004. 「마을형 단독주택지의 물리적 특성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1호, 153~161쪽.
- 박선희. 2014. 「마을공동체 사업성과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9권, 285~306쪽.
- 박영아. 2014. 「폐쇄형 SNS 이용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네이버 밴드(Band)'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영학회》, 제29권 4호, 157~185쪽.
- 박유진·김재휘. 2006. 「사이버 커뮤니티의 몰입과 정체성이 친커뮤니티 행동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9권 1호, 41~77쪽.
- 버킹엄, 윌(Will Buckingham). 2022. 「타인이라는 가능성: 나의 세상을 확장하는 낯선 만남들에 대하여」. 김하현 옮김. 서울: 에크로스.
- 서순탁. 2002.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과 과제: 접근방법과 정책적 함의」. 《국토연구》, 통권33호, 73~87쪽.
- 윤명희. 2008. 「블로그의 사회이론적 탐색: '커뮤니티'의 시각에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5권 4호, 121~169쪽. UCI: G704-001789.2008.25.4.003
- \_\_\_\_\_. 2009. 「디지털 공간의 스펙터클과 산책자」. 《담론 201》, 제12권 2호, 107~135쪽. DOI: 10.17789/discou.2009.12.2.005
- 이동후. 2009.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 세대에 대한 고찰: 사회적 소통과 관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3권 3호, 409~448쪽. UCI: G704-000045.2009.23.2.006
- 이수안·김광기·김무경·김홍중·박선웅·박소진·윤명희·전상인·최종렬. 2013. 『한국사회의 문화풍경: 핸드폰, 택배, 짬뽕방, 카페, 노래방, PC방, 편의점, 라면』. 서울: 그린.
- 이정화. 2019. 「SNS의 이용동기가 SNS의 사회적 자본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제19권 4호, 138~149쪽.
- 이행선. 2022.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웃과 가족의 대응과 소년의 성장: 마시모 그라멜리니, 『아주 오래전 그때는(이태리 아파트먼트)』(2020)」. 《인문논총》, 제59권, 187~217쪽. DOI: <https://doi.org/10.33638/jhs.59.8>
- 이환경. 2023. 「'플랫폼 어버니즘(Platform Urbanism)', 스마트시티의 개념적 대안: 디지털 가능태로서의 함의」.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82호, 154~163쪽.
- 장수명. 2014. 「도시 및 교육 공간의 사회계층별 분리와 영향: 한국적 맥락의 이우효과와 학교효과에 대한 통합된 신제도주의 관점의 이론모색」. 《한국교육정치학회》, 제21권 2호, 55~97쪽.
- 정민우. 2011.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서울: 이매진.

- 정유진. 2014. 「이웃관계의 중요도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짐멜, 게오르그(Georg Simmel).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 서울: 새물결출판사.
- 최재영·유수진. 2019. 「지리교육에서 심상지도(mental map)의 활용: 초등 사회과 4학년 <지역의 위치와 특성> 단원을 사례로」. 《한국지도학회지》, 제19권 3호, 103~116쪽.  
URL: <https://doi.org/10.16879/jkca.2019.19.3.103>
- 최종렬. 2022. 「대면적 상호작용의 질서와 성취: 고프만의 시각에서」. 《현상과인식》, 제46권 3호, 93~116쪽. DOI: 10.46349/kjhss.2022.09.46.3.93
- 최혜지. 2018. 「사회적 교류 공간의 세대간 분절 그리고 소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57권 5~27쪽. DOI: 10.17997/SWRY.57.1.1.
- 클라이넨버그, 에릭(Eric Klinenberg). 2013.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1인가구 시대를 읽어라』. 안진이 옮김. 서울: 더퀘스트.
- 투안, 이-푸(Yi-Fu Tuan). 1995. 『공간과 장소』. 구동화·심승희 옮김. 서울: 대운.
- 퍼트남, 로버트(Robert David Putnam). 2009.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서울: 페이퍼로드.
- 한남식·어성연. 2021. 「SNS 이용동기가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학회》, 제39권 3호, 91~105쪽.
- 홍다솜·백일순. 2022. 「플랫폼의 성장과 도시공간의 변화: 플랫폼 도시주의의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5권 2호, 83~97쪽.
- 후쿠야마, 프랜시스.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구승희 옮김. 서울: 한국경제신문.
- Barns, S. 2020. *Platform Urbanism: Negotiating Platform Ecosystems in Connected Cities*.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 Bergel, Egon E. 1955. *Urban Sociology*. New York: Mcgrow Hill.
- Bernard, J. 1973. *The Sociology of Community*. Virginia: Scott, Foresman
- Castells, Manuel. 2004.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orthampton: Edward Elgar Publishing.
- Castells, Manuel, Fernandez-Ardevol, M., Qiu, J. L., and Sey, A. 2009.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ety: A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Mit Press.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espie, T. 2010, "The politics of 'platforms'." *New Media & Society*, Vol.12. No.3, pp.347~364. <https://doi.org/10.1177/1461444809342738>



- Goffman, E. 1963. "Embarrassment and social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62, No.3, pp.264~271. URL: <https://doi.org/10.1037/11302-050>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8, No.6, pp.1360~1380.
-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20, pp.111~123.
- Kavanaugh, A. Carroll, M. Rosson, B. Zin, T. Reese, D. 2005. "Community networks: Where offline communities meet onlin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0 No.4. <https://doi.org/10.1111/j.1083-6101.2005.tb00266.x>
- Laing, Olivia. 2016. *The lonely city: Adventures in the art of being alone*. Hampshire: Picador.
- Leszczynski, A. 2019. "Platform affects of geolocation." *Geoforum*, Vol.107, pp.207~215. URL: <https://doi.org/10.1016/j.geoforum.2019.05.011>
- Nezlek, J. B., Hampton, C. P., and Shean, G. D. 2000. "Clinical depression and day-to-day social interaction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9, No.1, pp.11~19. URL: <https://doi.org/10.1037/0021-843x.109.1.11>
- Park, Namsu, Kerk F. Kee and Sebastián Valenzuela.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4. No.4. pp.875~901.
- Putnam, R. 1993. "What makes democracy work?" *National Civic Review*, Vol.82. No.2, pp.101~107. <https://doi.org/10.1002/ncr.4100820204>
- R. Lee, K. Park, and Y. Chung.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NEETS in the labormarke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1, pp.153~175.
- Richardson, L. 2019. "Coordinating the city: Platforms as flexible spatial arrangements." *Urban Geography*, Vol.41. No.3. pp458~461. URL: <https://doi.org/10.1080/02723638.2020.1717027>
- Tönnies, Ferdinand. 1887. *Community and society*. London: MOCKINGBIRD PRESS.
- Wellman, Barry, and Berkowitz, Scott. 1988.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UP Archive.

## 웹 자료

- 경기연구원. 2021. 「경기도 1인가구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21.12.16. “재택근무 시행 기업 55.5%, 코로나19 대응 위해 처음 실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국가지표체계. 2022.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pop=1&idxCd=5065>
- 국가통계포털(kosis). 2022. <http://kosis.kr/>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
- 보건복지부. 2021. 「성별·연령별 고독사 발생 현황」.
- 서울연구원. 2021.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jsp3/>
- 안신혜. 2023. 8. 28. “당근마켓, ‘마켓’ 떴고 ‘당근’으로 서비스명 변경 …지역 커뮤니티에 주력”. 《BLOTTER》.
- 정두용, 2023.2.27. “‘당근하다’가 가진 힘, 수익성으로 연결될까”. 《이코노미스트》.
- 첼러, 요하네스. 2021.11. “코로나 덕에 더 좋아진 이웃 관계”. 《피테 인스티튜트》.
- 최승은. 2022.8.11. “희미해진 ‘이웃사촌’, 사라진 ‘우리동네’… 지역 공동체보다 삶의 편의성이 더 중요해”. 《매드타임스(MADTimes)》.
- 통계청. <https://kostat.go.kr/ansk/>
- 표준국어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한국노동연구원. 2021. 「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일·생활균형」.
- HOMES. <https://www.welcomhomes.kr/>